

# 설 연휴 동안 아파도 걱정마세요. 문 여는 병·의원 및 약국 정보는 여기에서!

- 응급의료포털, 응급의료정보 제공(E-Gen) 앱, 콜센터(129, 119, 120) 통해 확인 가능 -

## <요약본>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설 연휴(2.9. ~ 2.12.)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,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.

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개소는 명절 기간에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,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(2.10.)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하게 된다.

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, 약국 정보 등은 ▲응급의료포털([www.e-gen.or.kr](http://www.e-gen.or.kr)) ▲응급의료정보제공(E-Gen) 앱(App) ▲보건복지콜센터(129) ▲구급상황관리센터(119) ▲시도콜센터(120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▲보건복지부 누리집([www.mohw.go.kr](http://www.mohw.go.kr))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.

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,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.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(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)은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, 보건소 및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.

**<상세본>**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설 연휴(2.9. ~ 2.12.)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,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설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·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.

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개소는 명절 기간에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,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(2.10.)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하게 된다.

**< 설 연휴 진료하는 병·의원 및 약국 수 >**

(단위 : 개소)

구 분	2.9(금)	2.10(토)	2.11(일)	2.12(월)	일평균
응급실 운영기관	524	524	524	524	<b>524</b>
공공보건의료기관 (보건소 등)	280	202	172	253	<b>227</b>
민간의료기관 (병·의원)	3,018	867	1,389	5,928	<b>2,801</b>
약 국	6,052	2,005	2,735	6,524	<b>4,329</b>
총 계	9,874	3,598	4,820	13,229	7,881

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, 약국 정보 등은 ▲응급의료포털(www.e-gen.or.kr)\* ▲응급의료정보제공(E-Gen) 앱(App) ▲보건복지콜센터(129) ▲구급상황관리센터(119) ▲시도콜센터(120)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▲보건복지부 누리집(www.mohw.go.kr)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. 이 내용은 지상파, 보도·종합편성 방송채널 등에서도 자막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.

\* 2월 9일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하여 정보 제공

※ 네이버,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‘명절병원’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‘응급의료포털 E-Gen’을 통하여 이용 가능

[ 응급의료포털 화면 예시 ]



‘응급의료정보제공 앱\*’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게 되고,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. 또한, 야간진료기관 정보, 자동심장충격기(AED) 위치 정보,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.

\*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‘응급의료정보제공’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

< 콜센터 번호, 홈페이지 주소, 스마트폰 앱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 >

- ▶ (유선) 129 보건복지상담센터, 119 구급상황관리센터, 120 시·도 콜센터
- ▶ (인터넷) 응급의료포털(www.e-gen.or.kr), 보건복지부 누리집(www.mohw.go.kr), 보건소 누리집
- ▶ (포털사이트) ‘명절 병원/약국’, ‘연휴 병원/약국’, ‘문 여는 병원/약국’ 등 검색
- ▶ (스마트폰 어플) 응급의료정보제공(e-gen)

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,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.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, 보건소 및 전국 43개 재난거점 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(DMAT)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.

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“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동안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라고 언급하면서, “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, 설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,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연휴기간 내 운영중인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” 라고 하였다.

한편, 지난 2023년 설 연휴(1.21. ~ 1.24.) 동안 응급의료센터\*를 방문했던 환자 내원 건수는 약 9만 건이었으며, 일평균 환자 내원 건수를 평상시와 비교하였을 때 1.2~1.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. 질환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을 보면 설날 당일 전후 3일 동안 연평균 발생 정도와 비교하여 장염 2.9배, 복통 1.7배, 감기 1.5배 증가가 있었다.

\*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178개소 응급실

- <붙임> 1. 응급처치법 안내  
 2.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응급처치요령 조회 방법  
 3. 2023년 설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분석

담당 부서 <총괄>	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	책임자	과 장	정혜은 (044-202-2550)
		담당자	사무관	최은경 (044-202-2558)
<재난의료>	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	책임자	과 장	백영하 (044-202-26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성규 (044-202-2644)



◆ 기본 응급처치 요령 및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은 응급의료포털 ([www.e-gen.or.kr](http://www.e-gen.or.kr))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 가능

□ 응급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

-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119와 환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. 무조건적인 환자의 병원이송이 아니라 위험지역의 환자를 접근 가능한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.

□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

-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,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.
-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‘강하고’, ‘빠르게’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.

□ 화상을 입었을 경우

-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.
-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, 된장, 연고 등을 바르지 않는다.

□ 벌이나 벌레에 쏘이는 경우

- 빨갱게 부어오른 부위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벌침을 찾고,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내듯 침을 제거한다. 상처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대 통증과 부기를 진정시킨다.
- 알레르기 반응(전신적 과민성 반응)이 일어날 경우,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(심폐소생술 참고)를 시행하면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.

□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

○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도록 하고,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(하임리히법)을 실시한다.

- (성인)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권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.
- (소아) 1세 이하 혹은 체중 10kg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'등 압박'과,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'가슴 압박'을 반복한다.

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	
성인·소아	영아
	

**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안내 화면**

○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⇨ 심폐소생술 ⇨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 심장충격기(AED) 사용법

\* 심정지 환자 발생시 앱을 통하여 주변 응급실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확인 가능

\*\*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확인만 필요할 경우 바탕화면에서 바로 ‘자동심장충격기’ 클릭

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바탕화면	심폐소생술 메뉴화면	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
		
“응급의료정보제공” 앱 메뉴화면 ①을 통해 병의원 약국 검색 및 응급처치 메뉴 선택가능	②의 추가검색 선택 후 “심폐소생술” 동영상 메뉴 선택	동영상 선택 보기

※ 119에 전화를 한 경우 상황실 요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을 수 있음

**□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안내 화면**

○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⇨ 응급처치요령 ⇨ 상황별 응급처치요령

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바탕화면	응급처치요령 메뉴화면	상황별 응급처치요령
		
“응급의료정보제공”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아이콘 생성됨	앱 메뉴 화면에서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선택	응급처치에 맞는 상황 선택 검색

□ 응급의료센터 내원 현황

- '23년 설 연휴(1.21.~1.24.) 동안 응급의료센터\*의 환자 내원은 약 9만 건으로 하루 평균 약 2만 1천 건 발생

\*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178개소 응급실

< 설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 현황 >

구분	'21년	'22년	'23년
총 환자 내원(만 건)	7.1	7.4	8.6
총 연휴기간(일수)	4	4	4
일평균 환자 내원(만 건)	1.8	1.9	2.1

- 명절 당일과 다음날에 응급의료센터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, 평상시와 비교하면 평일의 1.6배, 주말의 1.2배까지 증가

< '23년 설 전후 휴일 응급의료센터 내원 현황 >

구분	설 전후 휴일			평상시	
	전날	설	다음날	평일	주말
일평균 환자 내원(만 건)	2.1	2.3	2.4	1.5	1.9

□ 시간대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

- 9~12시간대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내원하였으며, 주간 시간대(9~18시) 이용 환자가 많은 편

< '23년 설 전후 휴일 시간대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현황 >

구분	0-3시	3-6시	6-9시	9-12시	12-15시	15-18시	18-21시	21-24시
설 전날(건)	1,584	1,034	1,454	3,780	3,496	3,335	3,322	2,885
설 당일(건)	1,797	1,207	2,011	4,273	3,950	3,811	3,448	2,877
설 다음날(건)	1,830	1,327	1,895	4,862	4,030	3,716	3,236	2,832

□ 주요 경증 질환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

- 응급의료센터 이용 주요 경증 질환은 장염, 얇은 손상, 복통, 열, 염좌, 감기, 폐렴 순으로 나타남
- 설 전후 3일 동안,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면 장염 2.9배, 복통 1.7배, 감기 1.5배 증가

< '23년 설 전후 휴일 주요 질환별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현황 >

구분	전체	폐렴	감기	장염	얇은 손상	열	복통	염좌
평상시(건)	15,936	762	643	972	2,077	1,038	1,151	741
설 전후(건)	22,664	755	974	2,799	2,751	1,270	1,963	1,110
증가율	142%	99%	151%	288%	132%	122%	170%	150%

□ 사고로 인한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

-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여 설 연휴에는 화상 2배, 미끄러짐 1.5배, 관통상 1.4배까지 증가

< '23년 설 전후 휴일 사고로 인한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현황 >

구분	전체	교통사고	미끄러짐	화상	둔상	관통상
평상시(건)	3,781	519	871	84	670	520
설 전후(건)	5,132	504	1,289	169	872	708
증가율	136%	97%	148%	202%	130%	136%

□ 설 연휴간 의료 이용시 권장 사항

-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하므로 문을 연 병·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권장

\* '23년 설 전후 휴일에 감기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평균 100.8분가량 체류했으며,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 약 2~6만 원 추가